CREATION TRUTH



청소년을 위한 **창조과학**

과학이 가장 재미 있는 나이는 어른의 나이가 아니다.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한다면, 그 분은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왔거나, 자기 자신의 지식을 성경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생활을 했거나 둘 중의 한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창조과학 이야기는 수십 년간 지녀온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외에도 복잡한 자연과학의 논리와 증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창조과학이 가장 재미있는 나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기이다.

"하나님은 왜 공룡을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은 몇 년 동안 나의 기도 내용 중 하나였다. 잘 만드셨다가 노아홍수와 빙하시대에 다 없애버리시고 말 것을 왜 만드셨을까? 아이들은 왜 하나 같이 무섭고 더러운 것을 좋아할까? 공룡화석들 중에 배설물 화석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반응



탐사여행에서 경청하고 있는 EM 청소년들

을 보면 매우 흥미롭다. 티라노 사우루스의 배설물 화석에서 나 온 남은 음식들 얘기를 할 때 청 중석을 둘러보면, 졸거나 다른 곳을 보는 아이는 하나도 없다.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더운 교 회당에 초등학생 200명을 한 방 에 몰아 넣고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의를 해도 아이들이 꼼짝 도 않고 열심히 듣는 주제는 공 룡밖에는 없었다. 공룡은 아이들

에게 창조과학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창조과학 사역자들에게 주신 멋진 선물이라 믿어 의심 치 않는다.

하나님을 왜 믿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 믿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이니까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곳은 창조과학 밖에는 흔하지 않다.

과학 서적이 개정, 증보, 2판, 3판, 4판으로 바뀌는 데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전에 모르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책의 페이지를 늘리거나, 전에 알고 있던 사실이 틀려서 교정하는 경우 두 가지이다. 그러니 지난 수백년간 출판된 과학정보는 수백년의 세월 어느 시점에서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성경 창세기는 3,400년 전 출판이후 개정되거나 교정된 적이 없다.

또, 자연과학자들이 정의 하는 "사실 (Fact)"은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불변성 (또는 항상성)이고, 두 번째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 야 하는 보편성 (또는 반복성)이다. 창세기와 자연과학을 단편적으로 비교해 볼 때, 결론적으로, 창세기는 "사실"이 되기에 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주를 믿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그 나이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축복이 주어진다. 창조주를 알고 첫 번째로 얻는 축복은 깊은 예배로 들어가는 축복이다. 예배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협상 (즉, 하나님에게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회)"으로 보는 자리에서 교제와 친밀의 자리로 가려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worship)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것, 그 분의 능력이 온 우주에 나타난 사건들 중에 창조보다 더 한 것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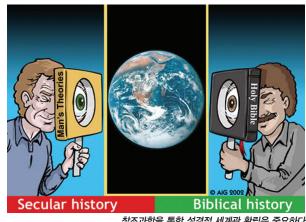
두 번째의 축복은 분명한 주인관계 (lordship)의 형성이다. 성도가 구원받는 길은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즉,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

는 예수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란 말이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교리상으로 이해는 되는데 마음과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동이 없고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하 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믿으면 그분이 내 몸과 영혼의 주인(owner)이 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소유권은 만들어진 피조물이 갖는 것이 아니고. 만든 자 에게 있는 법이다." "우리가 시간을 만들었다면 안 죽고 영원히 살수 있을텐데. 사람이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공간을 넘어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이유는 그분이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고백 되는 것은 창세기가 머리로 이해되고 공감될 때 가능하다.

" 하나님은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라는 가르침이 삶에서 변화와 능력으로 나 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이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못하면 절름발이 신앙이 되고 만다. 절반을 채워주는 것이 창조과

학이다. 자동차를 설계한 사 람이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빨리 고칠 수 있듯이. 나 보다도. 내 부모님보다도 나 를 잘 아시는 만드신 분 하나 님이 내 인생을 설계했고 책 임지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창조과학이다.

부모님의 영향이든. 좋은 교회를 만난 축복이든 어떤 계기에서든 예수를 믿고 세례



창조과학을 통한 성경적 세계관 확립은 중요하다

받은 아이들이 창조주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주인 관계를 회복하고, 내 인생에 가지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어린 이의 마음은 하얀 도화지와 같다고 합니다. 그 도화지에 진화론과 인본주의, 유물론적 세계관 이 그려지기 전에 공룡을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신다는 성경적 세계관이 그 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공룡을 세상에서 쓸어버리실 때 노아의 방주와 같이. 심판 때에 오실 예수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워의 길임을 알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향한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주 한인교회 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향한 창조과학 사역이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 박사 / 식품공학 전 한국창조과학회 창조과학캠프 교장으 로 섬겼으며 현재는 테네시주 내쉬빌에 거주하면서 창조과학선교회 EM세미나 및 탐사여행 인도자로 섬기고 있다.



김낙경 박사 식품공학



시대와 함께 떠오르는 동물이라면 여지없이 '매머드(mammoth)'가 꼽힐 것이다. 지질학자들은 시베리아를 포함한 북반구 고위도 전역의 동토와 얼음 속에 수백만의 매머드 화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매머드는 코끼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크기가 아주 크다. 그래서 아주 크다는 표현의 형용사로도 사용되곤 한다. 매머드에 대한 모든 정보는 화석에서 온 것인데 얼음 속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주로 뼈만 있는 다른 육상동물 화석에 비해 비교적 외모까지 상세히 그릴 수 있다.

매머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털이 있는 울리(Woolly) 매머드와 털이 없지만 더 커다란 컬럼비안(Columbian) 매머드로 나뉜다. 울리 매머드는 키가 3m 정도인 반면 컬럼비안 매머드는 4m가량 된다. 매머드는 큰 상아(tusk)가 특별한데 길이 약 3.3m에 무게가 100kg에 달한다.

매머드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은 과연 그들이 살던 시기가 지금의 시베리아와 같은 추운 환경이었다면 생존이 가능했었을까 하는 부분이다. 오늘날 시베리아에는 여름에는 최고 27° C까지올라가므로 별 어려움이 없지만 겨울에는 영하 12-6° C의 추위 때문에 커다란 포유류가 그리 많지 않다. 더군다나 매머드는 크기로 보아 하루에 180-300kg의 음식과 140-200L의 물을(얼지 않은) 섭취했어야 한다. 그렇다고 매머드가 겨울과 여름을 시베리아와 따뜻한 곳을 이주하면서 살아남는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매머드가 살았을 때 시베리아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어야만 했으며, 아울러 빙하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과 풀이 많은 조건이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이미 언급되었던 노아홍수와 빙하시대에 사이에 존재했던 습윤사막 시대에 번창했다는 것으로 쉽게 해석될수 있다.

매머드 화석의 모습을 보면 다른 화석과 마찬가지로 살아 있을 때 갑작스럽게 매몰된 모습을 보여주며 어떤 것들은 뼈가 부서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다. 또한 털까지 자세히 보존된 것들도 있다. 이런 매머드 화석들의 대부분은 빙하시대 말기, 즉 산사태나 눈사태가 유난이 많이 발생했을 해빙 때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 몇몇 화석들은 허파 속에 흙들이 들어 있어 질식사한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갑작스런 해빙과 함께 만들어진 광활한 늪지대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빠져 질식된 후 화석화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빙하시대 때 눈사태는 반드시 해빙 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눈이 쌓이는 동안에도 얼음의 아래 부분은 누적된 무게로 인해 압력으로 액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빙하시대 동안에는 국부적으로 눈사태가 일어나면서 눈이 계속 쌓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단 한 구만 발견되었지만 음식을 먹던 상황에서 매몰된 매머드가 있는데 그 위(stomach)속에 열대식물이 그대로 있었다. 이 매머드는 열대식물이 존재했던 습윤사막의 흔적이 남아있던 비교적 빙하시대 초기에 눈사태에 의해서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매머드가 살던 시기가 지금의 고위도 지역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빙하시대 화석으로는 매머드뿐 아니라 다른 육상동물 화석들도 발견된다. 이들의 화석화된 양상은 매머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같은 조건하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의 빈도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노아홍수를 포함해서 발견되는 전체 화석 가운데 99%이상은 해양생물 화석이며, 단지 0.0025%만이 육상동물 화석이다. 그리고 0.0025% 육상동물 화석의 대부분은 빙하시대 화석이다. 또한 빙하시대 화석의 대부분은 말기 즉 해빙 때 형성된 것들이다.

이런 화석의 빈도는 성경적 모델과 잘 조화를 이룬다. 노아홍수는 수면으로부터 수 km 아래서 물과 흙이 뒤섞인 저탁류가 흐르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다. 그러므로 당시 물속에서 서식했던 수 많은 해양생물들은 이 저탁류에 매몰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육상동물들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저탁류에 매몰되기 어려워 화석화되는 잠재력이 아주 낮을 수 밖에 없다. 반면에 빙하시대의 눈사태, 산사태 또는 해빙 때의 늪지환경은 육상동물을 매몰시키기에는 상대적으로 쉬운 조건이다. 실제로 노아홍수와 빙하시대의 화석은 어렵지 않게 구분된다. 홍수 때 매몰된 것들은 주로 뼈 조각이 발견되는 반면, 빙하시대 때 형성된 육상동물 화석들은 매머드 화석의 특징에서 다루 었듯이 몸 전체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있다.

한편 노아홍수는 전 지구적인(global) 사건임에 비해 빙하시대는 훨씬 작은 규모의 광역적 (regional) 사건이며, 노아홍수 때의 저탁류에 비해 빙하시대 환경은 화석을 만들기에 덜 훌륭한 조건이므로 화석의 빈도수는 홍수 때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이다. 한편 빙하시대 동안 얼음이 성장할 때보다 해빙 때에 더 많은 산사태와 늪지가 형성되었을 것이므로 빙하시대 동안에는 상

대적으로 해빙 때 더 많은 화석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양생물과 육상동물의 빈도수의 큰 차이나 화석의 뚜렷한 구분은 단 한번의 전지구적인 노아홍수 격변과 그 이후에 일어난 단 한번의 빙하시대와 해빙 모델에 잘 맞아 떨어진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ACT News

탐사여행 / 세미나 / 창조과학학교



창조과학 탁사여행

에브리데이교회

에브리데이 교회 EM (담임목사: 최홍주) 탐사여행은 지난 3월 남가주노회 목사님들의 창조과학탐사여행 후에 2세들을 위한 탐사여행이 계획 되어 8월 4일부터 3일간 41명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9명의 목사님, 담당 장로와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 되었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는 자연과학에 큰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고, 이미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전공할 예정인 졸업생들도 있었습니다. 버스와 숙소에서 진행된 강의와 비디오를 통해 그 동안 진화론을 일방적으로 배우고 믿어 온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많았고, 생물의 다양성, 종의 기원, 인류 진화, 지층 연대기, 방사성동위원소 등 수십 개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동안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창조에 관한 과학적 증거들과 성경을 토대로 한 세계관과 하나님의 설계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 처음에는 큰 반감을 느끼며 저항하던 학생들도 많았고, 자신의 믿음과 세상의 삶(학교와 전공 등) 사이에서 갈등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랜드캐년을 보고 돌아 온 둘째 날 저녁 강연 후에는 2시간 동안 자신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 답을 들은 참가자들은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밝아겼습니다.

이번 여행은 김낙경 박사의 인도로 진행 되었는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도하는 창조과학 투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였다. 성령께서 학생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 오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변화 된 생각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나눔과 고백으로 8 시간이 금방 지나 갔습니다. 학생들의 간증 일부를 14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지난 8월 6-8일 다윗의 장막(담임목사 류용덕)에서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마쳤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이 있는 Come Mission의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물리적인 한 건물 안에 있다는 것과 함께 영적

으로도 한 진리 안에서 사역한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CEO

지난 8월 9-15일 서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하용조)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천 CEO 탐사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랜드캐년과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잇는 1주일 간의 탐사여행이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직접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증거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역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탐사여행

에브리데이 교회 EM 탐사여행

House of Siloam(담임목사: 미야가와)에서 주축이 된 일본인 탐사여행이 지난 8월 17-20일 마 쳤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물질적인 진화론에 젖어있는 일본인들이 물질을 초월하신 창 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입니다. 이 탐사여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는 적극적 바람도 나왔습니다. 이번 탐사여행도 House of Siloam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 다. 9월 말에는 일본에서 직접 Love Creation 팀들이 탐사여행을 참석합니다. 창조과학이 선교 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크리스천 CEO 탐사여행



양곡교회 세미나 장면 참석하시기도 했습니다.

양곡교회 세미나

이재만 부회장은 지난 8월 22-26일 닷새간 한국의 창원에 위치한 양곡교회(담임목사: 지용수)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들아왔습니다. 저녁과 새벽예배를 인도했는데 저녁에는 삼천 여명, 새벽에는 이천 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나흘간 집회를 예정하고 시작했으나, 높은 호응으로 인해 하루를 연장하는 전기록도 남겼습니다. 담임이신 지용수목사님께서는 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장님으로 지난 6월 장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님들을 인솔하여 탐사여행에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에서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 된 제 18기 창조과 학학교가 8월 29일에 종강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믿은 과학자"와 "진화의 반대는?"이란 주 제 강연을 통하여 새롭게 배운 성경적 세계관에 확신을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할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창조과학학교는 9월 10일부터 미드웨스트 장로교회에서(매주 금요일) 시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847-845-5368로 연락 바랍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창조과학학교는 크고 작은 모든 교회나 단체에 열려 있습니다.

각 신문사에 창조과학 글 게재

지난 달부터 한국과 미국의 대표되는 신문에 창조과학 칼럼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한국의 예수교 장로회(통합) 신문인 기독공보에 이재만 부회장의 "창조과학 칼럼"이 매주 연재 되고 있 습니다. 또한 한국의 평신도 신문에 "노아홍수 이야기"로 9월부터 연재가 됩니다. 두 신문 모두 발행부수로서 한국 의 기독교 신문의 대표되는 신문입니다.

또한 최우성 박사도 지난 8월부터 미주크리스천 신문에

매주 창조과학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복음방송(최우성)에서 수년째 창조과학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고 있으며, 미주 CGN TV(이재만)에서는 창조과학콘서트와 노아홍수콘서트가 시리즈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창조과학 내용이 전달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예장통합 총회장 이임 대담에서 창조과학 중요성 역설

지난 6월 14-18일 예장 통합 소속 이사장님들과 총장님들 각각 6 분과 총회 임원들을 모시고 탐사여행에 참석 하셨던 지용수 총회장님이 2 년 동안의 임기를 돌아보는 이임 대담에서 창조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비중 있게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독공보 2010년 9월 2일자 인터넷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저는 나라의 미래는 교회에 있고, 교회의 미래는 신학교에 있다는 생각으로 날마다 우리 총회의 7개 직영신학교와 총장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훌륭한 신학자도 배출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베드로,요한,바울,실라,디모데,스데반 같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된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사도와 같은 가슴과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가 있어도 주님을 능가할 수 없고 아무리 주목할 신학이 있다 해도 성경을 넘을 수 없는 것이기에 모든 교수님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이 실력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창조과학회의 세미나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증거를 생생하게 체험할수 있게 해주며 노아 홍수의 사실성을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의심할 수 없도록 증거들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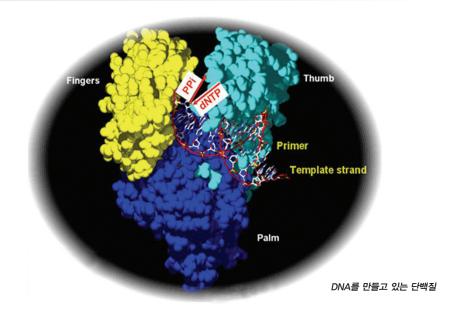
한국 예장통합 탐사여행 중 레드락 캐년에서

해 줌으로 국내 일반 대학의 유명한 다수의 진화론 학자들까지도 그 창조 과학세미나에 참여하고는 변하여 창조론자들이 된 바 있으며 저 역시 지난해 그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모릅니다. 그리고 기도 중 만일 모든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이 세미나에 참여한다면 신학교마다 사도행전의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나 여러 가지 형편상 전체 교수님들이 동시에 다 참여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일차적으로 각 신학대학교 이사장님들과 총장님들을 모시고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확신과 은혜와 체험을 하시고 각 대학마다 점차적으로 모든 교수님들을 창조과학세미나에 참여하게 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어 불원간에 모든 교수님들이, 나아가 한국의 모든 신학대학 교수님들과 특히 유럽의 신학교 교수님들도 다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세계의 교회들이다시 확기차게 일어나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태현 강사 논문상 수상

창조과학선교회 강사로 섬기고 있는 최태현 집사가 지난 8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조직 학회 국제학술대회 공공관리 분과에서 가장 우수하고 혁신적인 논문에 수여하는 논문상을 수 상하였습니다.



DNA 먼저, **단백질** 먼저?

먼저냐, 달걀이 먼져냐?"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지만 "닭이 진화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질문이다. 얼마 전 영국 과학자들은 달걀이 먼저라고 결론을 내렸었다(노컷뉴스 2006.05.26). 그러나 최근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드디어 나왔다고 여러 국내외 신문들이 떠들썩하게 보도를 하였다. 달걀 만드는 데 필 수적인 역할을 하는 '오보클레디딘-17(OC-17)' 이라는 단백질이 난소에 있는 것을 확인 하고 보니 달걀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라는 것이다(The Sun. 2010.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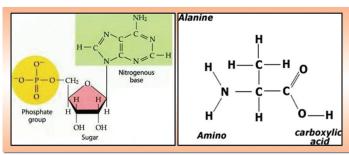
적잖은 크리스천들도 이 최근 기사에 흥분 되었던 것 같다.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을 너무 나도 많이 들어 온 터라 모처럼 성경과 같은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의 말이 반갑고 믿음에 커 다란 위안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 된다. 그러나 여기에 과학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중대한 실 수가 담겨 있다.

앞에 소개한 두 기사에서 보듯이 어떤 기원에 대한 과학자들의 설명은 언제나 뒤바뀔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크리스천은 성경을 믿는 근거로서 과학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오류가 없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판단해야 옳다. 물 론 그 이전에 성경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것이다. (성경이 진실되고 완전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 님의 말씀이란 믿음은 성경의 주장과 여러 증거들을 비교해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세포를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란 질문과 유사하지만 더 어려운 질문이 있다. "생명체의 정보인 DNA가 먼저냐. 이 DNA를 만들어 내는 생명체의 기계들(단백질들)이 먼저 냐?" 이 질문이 더 어려운 것은 이 단백질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는 DNA에 있는데. 이 DNA는 그 단백질이 만든다는 사실이다. DNA가 없으면 단백질이 있을 수 없고. 단백질이 없으 면 DNA가 존재할 수 없는 형국이다.

진화론자들은 엄청난 길이의 DNA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수 백 종류의 단백질도 우연히 만들어 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가지 형태의 당(D-형의 Ribose)으로만 이루어진 수 천만 ~수십억 개 길이의 DNA도 우연히 만들어 질 수 없고. 한 가지 형태(L–형)의 아미노산만 수 백 개 연결 된 단백질도 저절로 연결되지 않는다. (우연히 될 확률은 모두 다 가능성의 한계 1/10⁵⁰를 훨씬 벗어난다.) 실질적인 정보는 없고 형식만 갖춘 DNA도 단백질도 우연으로는 만들

어질 수 없는데, 하 물며 각자 우연히 만들어 진 DNA 정 보와 단백질의 정 보가 어떻게 서로 긴밀한 상관 관계 가 있을 수 있단 말 인가?



DNA 단위체와 단백질 단위체 아미노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보자, 러시아 말로 된 어떤 과학 정보가 손에 들어 온 적이 있었다. 영어와 비슷한 알 파벳도 있지만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였다. 이 뜻 모를 정보를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 다. 그런데 이 정보가 약 500 만 개의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정보. 그 부품을 만드는 기계에 대한 정보, 비행기 조립까지를 설명하는 정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한 편, 어떤 비행기를 조사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부품과 조립 방법이 그 러시아 정보가 지시한 대로 되어 있었다면 우연일까? 그 정보와 비행기는 전혀 상관 없는 사람들이 각각 만들었는데 우연히 100%의 상관 성이 있다면 이건 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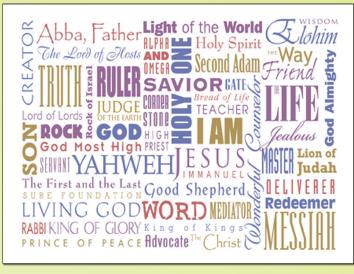
"단백질을 만드는 DNA가 먼저냐, 그 DNA를 만드는 단백질이 먼저냐?" 가장 논리적인 대 답은 DNA 정보와 DNA 정보를 만드는 단백질들이 (순서대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지적 존재 에 의해 동시에 기적적으로 같은 세포 안에 존재 했어야만 된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

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 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 어"(창 1:11).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 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 로 되니라)"(창 1:24).



최우성 박사 생리학

과학의 이해 4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학이 발견하는 신

미조물과 소통하시는 성경의 하나님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적 지식이 축적될수록 과학자들은 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빅뱅이론은 결국 처음 빅뱅이 있게 한 신을 가리킨다거나, 생명체의 복잡한 DNA를 보면 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거나, 양자역학의 확률적, 가역적 미시세계를 보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결국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등, 최근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지식인들이 어떤 초월적인 힘에 대한 경외를 자연스럽게 표시하고 있다. 바야흐로 과학과 철학과 신학이 다시 손을 잡는 시기라고 한다.

이러한 추세는 성경과 과학의 주장이 일견 다른 것처럼 보이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던 과학자들이 결국 자신의 여정의 끝에서 신을 발견한다니,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아닌가!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상에는 신을 이해하는 최소한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첫째는 범신론이요, 둘째는 이신론이고, 셋째는 기독교적 유신론이다. 결국 요점은 오늘날 인류가 다시 발견하고 있는 "신"이 과연 어떤 신인가 하는 점이다.

범신론은 모든 사물이 결국 신이라는 사고이다. 모든 사물에는 신의 속성이 깃들어 있으며, 신의 일부를 이룬다. 신은 이 모든 만물의 총합이자 이 만물과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범신론 사 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런 사고는 많이 퍼져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스타 워즈"에서 반군들은 서로에게 "May the force be with you"라고 말한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뉴에이지 사상에서 말하는 인간이 곧 신이라는 생각 또한 범신론이다. 범신 론의 신은 성경의 하나님처럼 만물을 초월해 있지 않다. 그 신은 만물에 깃들어 있을 따름이다. 우주의 탄생 과정을 창조주 없이 생각해 보면 경이롭고 신비하며 위대하다. 이 모든 질서가 어떻 게 단수한 물질로부터 가능했을까? 범신론적 사고는 더이상 "물질"을 단순한 것으로 보지 않 는다. 그 물질이 곧 신이기에 우주의 경이가 가능한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바로 이런 신 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신론은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좀더 모호하다. 이신론의 신은 법칙. 원리. 근원적인 동력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태초에 신이 있었다. 이 신은 피조세계에 자신이 설정한 법칙을 심어놓았고. 피조세계는 이 법칙에 따라 결정론적으로 빈틈없이 작동하게 되어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 은 물리법칙. 진화의 과정 등 어떤 규칙을 보이는 만물의 전개 과정은 신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신의 속성은 이 법칙에 깃들어 있으며, 이 법칙을 만든 신 역시 이 법칙을 깨뜨리지 않는다. 왜냐 하면 스스로 만든 법칙을 깨뜨려야 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완전한 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과학이 가정하는 신과 성경의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신론의 신은 "만날"수 있는 신이 아니라, 그(혹은 그녀)가 만들어 놓은 법칙들을 발견함으로써 목격할 수 있는 <mark>신이다.</mark> 이 신은 인격적 신이 아니다. 그가 세상에 대해 할 일 은 이미 끝났다. 기적이나 불확실함을 일으키는 신은 상당히 불편한 신이 된다. 20세기 이전의 근대물리학이 지배하던 시 대의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신을 생각하고 있었다.

기독교적 유신론, 즉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독특하다. 첫째. 성경의 하나님은 그 피조물의 총체가 아니라. 그 피조물 을 초월해 있으면서 피조세계에 편재하는 분이다. 모든 만물 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창조 주와 피조물의 구분이라는 점과. 모든 힘과 경이와 신비와 위

엄은 창조주의 것이라는 점에서 범신론적 신과 다르다. 인간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며 하나님 의 형상 곧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다. 둘째,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영속적인 법칙을 심어놓으시고 이 세상에 관여하기를 그치신 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신론의 신과도 구분된다. 창조주는 인격적 존재이며 그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과 역사 속에서 계속 소통하시길 원하시 는 분이다. 그분은 피조물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눈에 자연법칙의 파괴로 보이는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다. 세상의 시작과 달리. 이신론적 신은 세상의 끝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자신의 완전한 창조세계를 회 복하실 것이라 말씀하신다. 뉴턴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많은 개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진실로 생명을 주관하는 신은 예수님 한 분 뿐이다.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 신을 발견한다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

문을 던지실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15)." 그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답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 다"



최태현 강사 행정학



Everyday Church Youth EM 장·조과학·팀자(8월 5-7일)

학교 몇 몇 과목은 진화론이 지배적이고 반 기독교적이다.이 여행이 내 눈을 열어 주었는데 지 구가 수십억년이 아니라 수천년이란 것을 알았다. 이 여행은 진화는 틀렸고 사실이 아니며 창조 가 사실이란 것을 내게 증명해 주었다.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수백만년 전 수백만년 동안된 것이 아니라 노아홍수가 원인이란 것을 배웠다. - Alex La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구역사를 믿고 있다는 것 을 알았죠.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른 각도로 봅니다. - Eric Kim

이 여행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위엄을 더 잘 알게 됐고, 그랜드캐년은 제가 만져볼 수 있는 창조론의 증거를 보게 했습니다. 의심하는 불신자를 만날 때 저를 받쳐 줄 과학적인 자료를 갖게 되었습니다. - Eurie Jeong

종교가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창조과학이 성경만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 는 실제 증거들을 사용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Dr. Kim 정말 좋았습니다. – Laura Kim

창세기의 중요성을 배웠고 신묘막측하게 사람과 사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상상 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지구에 매료되었습니다. - Nicole Moon

전에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왔었는데도 판게아나 화석 연대측정 하는 것 같은 새로운 것을 배 웠어요. 하나님의 책은 끊임없이 저를 경탄하게 만드네요. 이 여행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제 믿음 과 확신을 더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 Geena Lee

오기 전에 창조과학 여행에 시간을 써야할지 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밑 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쓸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을 얻었습니다. 오게 된 것이 정말 기뻐 요. 오랫동안 믿기지 않던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 되었거든요! – Abby Heejae Lim

하나님 정말 놀랍고 좋아요 공공 학습 장소에서 창조론이 가르쳐지도록 해야 돼요 내 하나 님 나의 창조자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랜드캐년이 이렇게 숨막히게 아름다운데 하 늘나라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상상이 안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 을 맛보기를 그리고 축복합니다. - Elissa Yang

손에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증거를 보는 이 독특한 기회를 감사합니다. 그랜드캐널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이 지구 위에 쏟아진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창세 기 전체를 믿을 수 없었는데 너무나도 믿기 어렵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박사님 이 명백하게 설명해 주실 때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지는 전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 Jennifer Choi

과학에 취미가 없어서 이 과학여행에 관심이 업었죠.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 의 창조와 과학의 진화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란 증거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 Seon Jee Kim

이 여행은 제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창조론 입장에서 어떻게 지구가 창조 되 었는지 전혀 지식이 없었거든요. 여러 진화 이론들이 거짓이란 것을 보게 된 것은 정말 놀라왔습 니다. 이 여행 정말 흥미롭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는지에 대해 많이 배운 것이 기쁩니 다. – Edward Kim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증거도 없이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이 정보들로 다른 이 론들을 부정할 수 있어 제게 확신을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정하게 되었습니다. - Brian

고등학교 내내 이 세상의 경이로운 자연이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되었다고 배 웠습니다. 그랜드캐년이 대홍수로 만들어졌을 것이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침식 작용으 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늘 생각 했죠. 이 멋진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좋았습니다. - Mark Yang

여행 전에 창조의 증거를 조금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창조가 맞다는 것을 더 확신합니다. 제 믿음도 더 강하게 하고 믿지 않고 진화론자들인 친구들에게 창조가 옳다 는 것을 납득시켜 주기 위해 더 배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Kenneth Kim

논쟁만 즐기는 머리 좋은 제 친구들과 얘기 할 때 쓸 유용한 토론제목들을 얻었습니다. 정상 급 과학자들도 창조가 확실히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사실이 제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 하도 록힘을줍니다. - Lilv

그 동안 다녔던 어떤 여행보다 더 유익한 것이었다. 전에는 창조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 지만 지금은 최소한 믿지 않는 제 진화론자 친구들 몇 명에게는 창조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습니다. 창조가 노아홍수 와 연결 된 것도 몰랐습니다. 창조가 유일한 방법이란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계속 더 배울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창조과학자가 될지도 몰라요. - Grace Chang

엄마가 말도 안 하고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매일 똑 같은 일이 지겨워 오기로 했죠.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도록 노력했습니다. 덥고 긴 버스여행이었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제 기대 이상이었 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분 없이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재확. 인 시켜 주었습니다. PS. 스테이크 정말 기가 막혔어요. ILOVE ARIZONA! - Lucv

● 지면상 실리지 않거나 편집되지 않은 간증 전문은 홈 페이지 "간증"을 클릭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Atolo12 Schedule

2010년 ACT Schedule

10/1-5 창조과학 탐사여행 (광주동광교회, 213-381-1390)

10/8-10 로체스터온누리교회 (최태현), NY 10/8-10 미드웨스트 장로교회 (이재만), IL

10/9 샌디에고 창조과학 박물관 (최우성,ANC 온누리교회 모세회), CA

10/10 주님의 영광교회 (최우성), LA, CA

10/11-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충현선교교회, 213-381-1390)

10/17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11/3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이재만, 714-614-0514), Westminster, CA

11/10 오렌지<mark>카운티</mark> 제일장로교회(이재만, 714-614-0514), Westminster, CA

11/12-14 토론토 성산교회 (세미나, 이재만, 416-785-4620), Canada

11/14 주님의 영광교회 (최태현), LA, CA

11/14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최우성, 562-653-0168), Cerritos, CA

11/15-18 창조과학 탐사여행 (TIMA)

11/17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mark>최</mark>우성, 714-614-0514), Westminster, CA

11/21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11/22-24 창조과학 탐사여행 (J국 교회 지도자)

11/24 오렌지카운티 제<mark>일</mark>장로교회(최우성, 714-614-0514), Westminster, CA

12/3-5 그레이스 휄로쉽교회 (이재만), Houston, TX

12/12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LA, CA

12/20-22 창조과학 탐사여행 (은혜의 방주교회 EM, 213-381-1390)

12/26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12/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빛교회, 샌디에고에서 출발, 858-874-2412)

2011년

1/3-5 11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2/28-3/4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생터 성경사역원)

3/4-5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이재만, 512-454-1727), TX

3/21-31 아키타, 아오모리, 센다이, 나가노 Love Creation (이재만), 일본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